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5. 가을(Autumn)

가을엔 1

추경희

시간이 가랑잎에 묻어와
조석으로 여물어 갈 때
알내 물소리
조약돌에 섞여
가을 소리로 흘러내리면
들릴 듯 말 듯
낮익은 벌레소리
가슴에서 머문다
하루가 달 속에서 등을 켜면
한 페이지 그림을 접듯
요란했던 한 해가
정원 가득 하늘이 좋다



산청 성심원 홍수피해 복구 소식

매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올 여름도 역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뜨거웠고, 이제 기후 이상 현상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후 이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아마도 산불 피해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일 것입니다. 하늘이 까만 연기로 뒤덮이고, 집 앞까지 불길이 밀어닥치는데 야속하게도 빗방울조차 보이지 않더니, 또 얼마 후에는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모든 것을 휩쓸어 가 버렸죠. 산청 성심원 역시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마을 앞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다리까지 잠길 만큼 물이 쏟아져 내려왔고, 마을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물에 잠길 것을 염려한 작은형제회 수사님들과 우리 수녀님들, 그리고 직원들은 입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건물 1층에 보관 중이던 엄청난 양의 간호기록과 약 등을 건물 3층으로 옮기느라 밤새 고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건물까지 물이 들어치진 않았지만, 토사가 흘러내려 건물 여기저기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 곳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피해복구 성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오셔서 함께 복구작업을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지만, 또 인간의 마음과 힘을 모으니 이렇듯 엄청난 피해도 이겨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이상 현상을 더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우리의 힘을 합치면 또 이겨내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더욱 힘을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정애 엘리사벳 님의 전시회 소식

우리 후원회원이자 이진아 엘리사벳 수녀님의 어머니이신 송정애 글라라님의 개인 전시회가 명동성당 1898 갤러리에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렸습니다. ‘사랑, 추억, 빛’이라는 제목 아래, 작가님의 지난 세월 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들과 순간들을 밝



고 따뜻한 색감으로 화폭에 담은 전시회였습니다. 더불어 칠순을 맞으신 작가님께서 칠순 잔치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 주셔서 마음과 몸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열성으로 설명해 주신 작가님의 건강을 빌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활동 계속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청년 기도 모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음에 그분을 만나러 달려간 막달레나처럼 한여름의 뜨거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리봉 언덕으로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청년들을 위한 여름 피정을 마련하였고, 청년들은 9일 기도로 마음 준비를 해서인지 매우 진지하고도 편안하게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영선 루시아 수녀님과 함께 한 오후 강의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에 충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자매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최고의 일타 강사인 김루시아 수녀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신 덕분에 모두 환하게 웃으며 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자매들이 편안하게 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가리봉 성프란치스코 공동체 수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신서원자 축일

8월 11일 성녀 글라라 축일은 우리 FMM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따랐던 성녀는 모든 FMM 종신서원자들의 주보 성녀이기 때문이지요. 각 공동체마다 전례 안에서 함께 경축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로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회원이 종신서원자라서 자축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참된 프란치스코의 모범이신 성녀를 본받아 더욱 충실히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창립자 말씀

“**참**으로 가난한 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박탈되도록, 자신이 소멸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입니다. 하느님만 소유한다면 그는 포기 가운데에서 평화중에 머무릅니다.”

‘마리 드 라 빠시옹과 함께하는 15일 기도’ 중에서



사도직의 향기

‘수녀님.. 죄송해요
저희 집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누전되어서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아요
솔직히 죽으려고 했는데
유서까지 다 써냈고
목매달려고 줄까지 사 났는데...
너무 무서워요’



조란 마르타 fmm

지난 7월 10일 새벽 3시 42분에 온 메시지를 새벽 미사 가기 직전에 확인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미사를 온전히 이 여성을 위해 봉헌하며 지혜와 도움을 청한 후 서둘러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에서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반하는 이 여성은 우리 상담소와 인연을 맺은 지 8년이 되었지만, 3년 전부터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거주하는 곳의 현관 문은 이 세상 어느 기술자가 와도 열리지 않을 듯 굳게 닫혀 있는데, 월 1~2회 정도 문고

리에 간단한 부식 거리를 걸어두고 돌아오기를 반복한 지 1년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네요. 전날인 7월 9일에도 118년 만의 폭염에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되어 컨디션 조절하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겠지, 살아있다는 표시인 카톡 메시지에서 숫자 1이 사라지는 것과 이따금 회신 되는 ‘네’, ‘감사합니다’ 라는 건조한 답장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여성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여성은 은둔을 시작한 이후 씻은 적이 없는 상태였고, 여성의 침대 위를 제외한 집 안 모든 공간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그 냄새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전혀 없음에도 여느 집을 들어가듯 신발을 벗고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여성과 인사를 나눈 뒤 당장 시급한 전기문제를 해결하고, 4시간여 동안 눈을 맞추며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도중 쓰레기로 가득 찬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을 때, 그길로 곧장 특수청소업체를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 다음 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 당일, 작업 전에 여성의 집에 도착하여 오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사람이 들이닥친다는 불안감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도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것을 묻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여성을 마주하며, 이 꽃과 같은 존재를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과 청소 년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팔려 간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에서의 20여 년은 결코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성매매업소 생활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강해서 상담소 지원으로 바리스타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필기시험까지 치렀었습니다. 하지만 아로새겨진 여성의 상처는 그녀가 사회로 나아갈 의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천호동 집결지 화재 사건으로 모든 업소가 문을 닫고 여성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여 독립된 공간을 가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토록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비참했고, 결국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의지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여성은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15평 남짓의 집 청소, 하지만 여성의 안방은 끝내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여성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어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업체 팀장님도 저만큼 안타까우셨는지, 며칠 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문자 드립니다. 고객님의 마음의 병이 있으셔서 끝내 방에서 나오지 못하셨지만, 카톡으로 청소 상태를 확인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며 감회가 새로 왔거든요. 그냥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그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고객님의게서 잘 지내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와 간간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깨끗이 할 수 있었던 건 비위가 좋아서도, 수입이 높아서도 아닌, 이 집에 머무는 존재의 새로운 인생에 동참한다는 마음 하나였



던 것이겠죠. 저희 소년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움아매지 않도록,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그녀들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고민하며 동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탈리타 쿨!” (마르 5,42)

예수님께서서는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게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셨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구원사업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매일을 봉헌하고 준비하며, 가장 보통의 삶을 사시는 후원자님께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빌며, 오늘 나를 스쳐 간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화살기도를 바쳐보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전됐을 때 빨리 죽음을 앞당기라는 계시구나 하고 유서 쓰고 계속 울었는데

결국 정전된 게 저 죽지 말라는 계시였네요.

정전 덕분에 수녀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 이런 기분을 느껴요.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수녀님이 제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후원자의 날’ 이모저모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INGEE	김성애	김진우	박원서	손정우	유성재	이영복	전주란	최선경
가나스틸	김성욱	김진욱	박윤실	손주희	유수민	이영애	전충엽	최선애
가정성당	김성용	김채송	박은영	송경수	유영재	이영옥(최순필)	전혜향	최성순
가좌성당	김성원	김철형	박은정	송명순	유은분	이영혜	정경원	최숙규
강경아	김성현	김추양	박은희	송순이	유은정	이옥자	정경필	최순애
강미현	김수경	김춘자	박재용	송승윤(김서현)	유주영	이원순	정광진	최승호
강숙자	김수연	김프란	박정순(임현서)	송영빈	유채영	이윤신	정동락	최애란
강순애	김수영	김학명	박정식(김호성)	송정애	유춘성	이윤옥	정명국	최영남
강신연	김숙경	김항진	박정연	송채영	유혜정	이은미	정미영	최영운
강연호	김순철	김현숙	박주형	송혜경	유홍순	이은정	정미희	최원단
강원석	김애경	김현숙(최지명)	박준우	순교성인성당	유희숙	이은주	정성민	최원철
강향주	김애자	김현희	박진	신동규	육동배	이임수(송재용)	정소영	최은실
검암성당	김애리사	김형희	박찬순	신승일	윤계남	이재영	정영숙	최인석
고려문화	김영순	김혜정	박찬주	신아영	윤규현	이재옥	정은희	최일순
고병찬	김영옥	김호진	박찬희(강동연)	신용숙	윤명자	이정란(최윤)	정인순	최재석
고성철	김영운(손연희)	김희재	박춘봉	신유라	윤명희	이정민	정재훈(정지호)	최정선(윤각의)
고승희	김영자	나숙희	박태분(최민정)	신유주(신상빈)	윤문섭(문선미)	이정숙	정진명	최정일
고은하	김영재(허갑수)	나정순	박해필	신재진	윤미숙	이정원	정진숙	최종국
고재영	김영주	남가경	박현애	신정성당	윤보미	이정준	정찬영	최지은
고지영	김영준(김정예)	남보라	박현희	신주선(신유경)	윤봉수	이정하	정혜경	최효순
공창용	김영춘	노미경	박회수	신주화	윤순희	이정희	정희	추기연
공해용	김영한	노병덕(권정희)	박효정	신창규	윤임순	이종옥	조건희(최휘선)	추영숙(김주년)
곽경만(박병금)	김옥림	노봉근	박희순	아가맘나눔센터	윤정미	이종윤	조경득	추종현
구유희	김옥주	노석심	밝은미래	안미령	윤정희	이종은	조광태	태계남
권고은	김용민	노인숙	방웅	안성민(이재익)	윤한희	이주호	조규진(조남섭)	푸쳐로직스
권순영	김용수	노정애	방진	안양금	윤현숙	이지연	조금자	하옥경
권순익	김용수(여기정)	당효준(이순희)	배수정	안자영(조진상)	이가을	이지인	조봉례(이성호)	한규영
권영오	김용식	류정이	배영주(김수영)	안정임	이갑수	이진욱	조상위	한기훈
권정신	김용자(윤소라)	마선안	배윤숙	양기홍	이건희	이채화	조석금	한상국
금부동	김용주	마전성당	배장열	양미경	이경재	이태금	조선희	한순옥
금창호	김용준	명영희	배철희	양영자	이계호	이필단	조성자	한순희
기중현	김원란	모틀초경	백미자	양윤석	이광희	이향남	조순옥	한영미
길광일	김원숙	문경애	백성대	양윤재	이금용	이해령	조영주	한옥선
김경순	김유정	문미형	백정금	양종한	이남순	이해일	조원균	한은주
김경재	김윤기	문상원	버닝하트이대	양천애덕회	이덕호	이현순	조인주	한진경
김경희	김윤철	문성식	변복자	여은지	이동준	이현재	조재호	한효정(권호현)
김광기	김인희	문준식	변태식	연수성당	이동현	이현준(이창석)	조정희	함광훈
김귀선미리암	김잔디	민들레복지	부산아름	연희성당	이명희	이홍식	조진면	허재숙(장효선)
김귀선스테파니	김재규	민정웅	사랑나무치과	영적가족	이미란	인동FN	조현주	정정자
김기정	김재식	박경임	사랑의손길회	오말희	이민희	인용석	조혜영	현경미
김나린	김재욱	박금난	샬트르이은별	오복연	이병철	인천교구	조화숙	홍말숙
김남기(김민정)	김정매(박치현)	박기선	삼장례(민들레)	오소영	이복순	인천프란	조희공	홍명숙
김덕칠	김정민	박문주	서덕순(서득순)	오숙자	이상문	임승옥	조희무	홍민선
김도상	김정선	박민주	서명자	오승훈	이상숙	임정태	주성미	홍민희
김도영	김정숙	박병욱(송덕규)	서춘자	오아영	이상옥	임지원	진성자	홍성란
김동현	김정순	박병주	서태진	오영희	이상호	임혜숙	진숙인	홍세아
김득수	김정애	박상미	서향란	오옥형(최민규)	이선영	임호	찬미예수님	홍승희
김득현	김정웅	박선정	서혜경	우상혁	이성구	장민정	채성훈	홍영용
김미리	김정임	박성준	서혜석	우영희	이성남	장민호	천명덕	홍익기
김민규	김정택	박성현	석남빈첸시오	우혜령	이성엽	장세옥	천정원	홍정임
김별	김정화	박소연	석상령	윤남빈첸시오	이성혜	장영문	청라성당	홍종길
김봉연	김종연	박소정	성아가다(사)	원ENG(김진식)	이수진	장원태	최규범	황경희
김봉현	김준희	박소진	성영신	원당성당	이슬기	장인용	최금영	황미순
김상률	김지선	박수민	성영주	원세경	이승옥	장현아	최두진	황세원
김상태	김지영	박수인	소재록	유경진	이승은	장형숙(추현준)	최명숙	황영근
김셋별	김지은	박순옥	손순덕	세계청년조직	이승희	전순임	최문숙	황윤서
김서애	김지혜	박순자	손은영	유경혜	이시원	전순자	최미선	황의택
김선옥	김진금	박승민	손은주	유미경	이안나	전순희	최미양	황인복
김성미(신소희)	김진숙	박연애	손정례	유병춘	이연실	전은희	최민자	황혜숙

